

“애들은 귀 뚫지 마세요”

12~16세 청소년기 귀 성장 왕성 함부로 귀 뚫으면 청각장애 위험 고교졸업후인 19세 이후가 적당



잘못된 피어싱으로 켈로이드가 생긴 귀(왼쪽)와 켈로이드를 제거한 후 자석을 붙인 모습.

남자 연예인 및 스포츠스타의 피어싱(Piercing)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피어싱이 유행이다. 그러나 청소년 시절 인위적으로 귓바퀴에 한개, 혹은 그 이상의 구멍을 낼 경우 귀 성장은 물론 청각장애의 위험이 있다는 게 전문의들의 지적이다. 또 귓바퀴는 다른 신체기관에 비해 상처가 치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흉는 과정에서 세균감염 등으로 합병증이 생기면 귓바퀴의 일부 연골을 잘라내거나 뚫은 부위에 부풀어 오른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피어싱의 적정 연령과 부작용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왕성한 귀 성장 시기**
고래대 구로병원 채성원 교수(이비인후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장 왕성하게 귀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는 14~16세였다. 특히 여성은 12~16세에 많이 성장한다. 이 시기에는 귀를 뚫는 등 인위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채 교수는 “사양인은 귓바퀴의 장경과 폭경의 성장이 각 12.9세에 정상 성인의 90%에 도달해 동·서양인간에 차이를 보였다”며 “때문에 청소년기에 함부로 귀를 뚫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어싱과 귀 성형술은 언제쯤 좋은가?**
선천적인 기형인 소이증(귓바퀴가 제대로 자라지 못

해 귓볼만 있는 상태), 돌출귀, 매몰귀 등의 질환으로 외과적 재건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귓바퀴 성장상태를 신중히 고려해 고교졸업 후인 19세 이후가 적당하다. 피어싱은 대부분 금은방이나 화장품 판매소에서 하는데 확실히 소독했는지, 1회용 주사기로 구멍을 내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어싱 부작용 및 치료법**
피어싱을 잘못했거나 피어싱 후 오래도록 귀고리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좁쌀 크기부터 은행알 크기의 흉(켈로이드)이 생길 수도 있다. 심하게 도드라지면 부풀어 오른 흉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자석을 이용해 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강북삼성병원 장중현 교수(성형외과)는 원형 자석 2개를 귓바퀴에 생긴 흉의 앞뒤에 붙여 자석의 당기는 힘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

장 교수는 “흉터에는 보통 콜라겐이 형성돼 자석으로 압박을 가하면 콜라겐 교환을 막아 흉터가 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켈로이드가 은행알만한 것은 수술 후 자석을 붙이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피어싱이나 귀재건 수술은 고교졸업 이후에 하는 게 좋다.

계은영기자
pinetree@sportsseoul.com

알쏭달쏭 퀴즈나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7일자 정답)

임기	응변	출가	외인
전차	성삼	문강	공
무	칠기	분	강
퇴사	문	천재	일우
문서	수원	시	불수
분서	갱유	불	수
기	도	대구	구
랭	법부	부	양초
천편	일률	인면	수심

ARS 퀴즈: 현금 10만원이 왜르르...
문제: 오늘의 알쏭달쏭퀴즈 중 새로
마지막 문제의 정답 획득?
음모: 060-700-2226 ②
바로바로 정답실명: 060-700-2226 ①
당첨자 발표: 02-713-07**,
02-502-24** , 051-503-28** ,
053-652-34** , 061-391-17**

가로 열쇠

11위의 통증 2소의 쓸개에 생겨 문진 물건. 00침심환 4뿌리의 아랫부분이 통통하고 굵은 재래종 무 7볼 여름 가을 겨울 9질병으로 인해 제대하는 일 1000 난초국화 대나무 12이번 월드컵에서 3전3패를 기록한 우리의 이웃나라 13나라공공가 호동왕자를 위해 찢었다는 북을 '000' 라고 한다 15간결하게 쓴 문장 17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18아연을 입힌 얇은 절판. 백철 20잘못 판단함 22어린 아기가 걷는 모습 24비오듯이 많이 끼는 안개. 물가에 피어나는 안개 26추구공 하나로 온 세계를 열광시키는 지구촌 대축제 27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곳. 수사가 00에 빠진다 28군대 중 가장 작은 부대. 소대의 아래 단위

세로 열쇠

11말 전 끝난 MBC 드라마의 제목. 김영철 황신해 신성우 배종옥 주연 13봄철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누런 먼지 바람 14사물의 상태를 알맞게 조정하는 일. 컨디션을 00하다 15우나라꽃 16아내의 여동생 18큰 소용은 못 되나 버리는 아까운 사물을 이르는 말. '닭갈비'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 19물무질을 해 쇠로 온갖 연장을 만드는 곳 11사리사자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자 12명량만한 크기의 사진관 18지능이나 성격, 행동이 문제 시대 특별 지도가 필요한 아동 18조약에 따라 무장이 금지돼 있는 지역. 종말지대. DMZ 20여자가 한을 품으면 00에도 서리가 내린다 21입금의 일종 23만수자 24물을 담아 마시는 컵 25배짱이가 한가롭게 놀 때 열심히 일한 곤충

“5시간 이상 수면에 아침 꼭 먹어야”



한 수험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있다.

D-100
수학능력시험(11월 6일)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한층 강해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이나 중압감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 불안, 초조, 신경쇠약, 소화불량, 설사, 변비, 두통, 어깨결림, 눈이 피로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
울산의대 대전선병원 김영돈 교수

(정신과)는 “무더운 여름철은 수험생이 가장 견디기 힘든 때”라며 “수험생은 자신감을 갖고 주변에서는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 최소 하루평균 5시간 이상 자야 낮동안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좋아진다.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복용하는 각성제나 커피, 풀라, 담배, 술 등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므로 반드시 피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루

에 10분만이라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가 골고루 든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아침 식사는 학습능력 사고력 집중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킨다.
을지대학병원 최희정 교수(가정의학과)는 “1시간 정도 공부하면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5~10분 정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맨손체조나 가벼운 몸풀기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계은영기자

수술공포 ‘부분마취’로 안심



곳모닝 닥터

수술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다. 척추라는 인체의 주요 부위에 칼을 대야 하는 처지에서는 당연히 갖게 되는 감정일 것이다. 실제 수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쳐 ‘사서 고생’ 하는 환자들을 왕왕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부분마취에 의한 수술법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시술하므로 마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박경우 광혜병원장

부분마취는 간단한 수술일 때에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수술법으로 알기 쉽지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반드시 그렇지만 아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디스크수술 가운데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의사들도 이 점에 대해 놀랄 정도다.
부분마취에 의한 디스크수술은 말 그대로 척추에 부분마취를 한 뒤 환자와 대화하며 수술하는 시술법이다. 신경이 손상됐는지의 여부 등을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대답해주며 수술해 수술 성공률이 매우 높고 재발률도 낮다. 또 전신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오는 신체적인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른 편이다.
어떤 수술이든 마찬가지로 부분마취에 의한 디스크수술도 시술의사의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술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 다이어스트

칼 대지 않고 유방암 제거

●유방에 칼을 대지 않는 ‘맘모톰(Mammotome) 조직검사’로 3cm 이하 양성 유방병을 제거할 수 있다.
서울 오세민외과 김미혜 원장은 최근 열린 한국유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행한 131건의 유방병을 조직검사 가운데 2.8cm 이하의 병을 103례를 바늘을 장착한 맘모톰 시술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맘모톰 조직검사는 유방암이 의심되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해 조직을 떼어낸 후 암여부를 진단한다. 특히 조직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웬만한 병을 자체를 떼어낼 수 있어 절개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화상채팅으로 환자 무료상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렌지성형외과·치과(www.orangeclinic.co.kr)

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화상채팅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웹 카메라를 이용해 의사가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의료상담을 해준다.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되고 상담일은 화·목요일.

미 병원과 원격진료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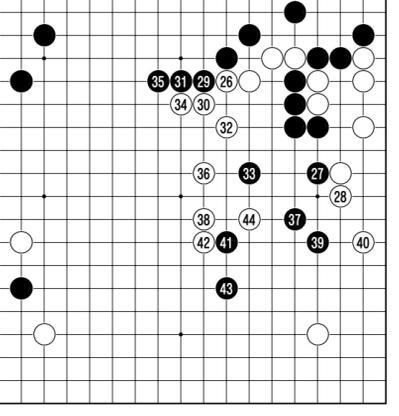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미국 시디스 사이나이병원과 원격진료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했다. 미국 LA베벌리 힐스에 있는 시디스 사이나이병원은 미 UCLA의대 교육병원의 하나로 순환기계통과 뇌신경, 암치료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AMP한국은 숙련된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받는 것 같은 소노이드 마사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분당 1200번 이상 사이클 운동을 해 뭉쳤거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말초혈액순환과 임파순환을 증가시킨다. 증풍·소아마비·교통사고 후유증·관절염 환자 등이 사용될 수 있다. (02)552-0625

제5기 바씨카드쇼 한·중 신인왕전

●이세돌(3단) ○평취안(4단)
제3번기 제3국 제3보 (26~44)

실속 없는 공격

전보에서 살펴봤듯이 백의 정식 선택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 배석도 백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좌상기를 이미 흑이 튼튼히 굳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26·30·34 등이 모두 흑의 집을 만들어주는 이적수가 되는 것이다.
그나마 백에게 희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측 흑에 대한 공격으로 세력을 쌓아 좌하귀쪽 흑 한 점을 확실히 제압하는 것.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다. 중앙 백도 그리 튼튼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38로는 39자리를 받아 우변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4선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백에게 득이 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38의 곳이 더 급하다. 우변 집을 짓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오히려 흑에게 중앙을 공격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변에 어마어마한 흑 집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작은 실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우측 흑에 대한 공격의 실마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시간 각 3시간 6점 반

백38로는 39자리를 받아 우변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4선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백에게 득이 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38의 곳이 더 급하다. 우변 집을 짓는 것에만 열중하다가 오히려 흑에게 중앙을 공격당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변에 어마어마한 흑 집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작은 실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우측 흑에 대한 공격의 실마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치형 초단

한수 배움사

●문제도 (흑차례) 발상의 전환 하나로 백을 잡을 수 있다.

●정해도 (자살수) 자살수가 급소. 백2 다음 흑은 1에 치중!

2002년 12월말 까지 **3개월 무이자 할부** **오로미디어** (02)333-1157

24시간 1:1 운세상담 절대비밀보장 060-700-8033

성공미래 24시간 운세상담 060-700-5495

다시간 포털 메일 서비스 060-900-5335

처녀모살 실시간 운세 상담 788-4479

부부운 1:1운세직접상담 24시간 만족상담 060-700-2033

79127765 5888 5888 5858 9010 060-600-0808